

서부권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목포시

삼학도 복원·북항 개발 끝내라

6·2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목포대교 건설 등 목포지역 현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정종득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은 더욱 안정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현안사업 밸굴 보고회를 통해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72개 사업에 산 2660억원을 확정했다.

시는 올해 지역 현안사업으로 ▲고하도~죽교동간 국도 대체우회도로(목포대교·내년 10월 완공 예정) 건설 ▲목포신항 및 북항 개발(내년 말 완공예정) ▲대양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2012년 11월



고하도~죽교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목포대교 조감도.

확보팀을 구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간부회의를 통해

고하도~죽교동간 목포대교 조기완공 시급

남교동 쌍둥이 빌딩 건축 등 원도심 살리기

완공예정) 등을 추진한다.

3선에 성공한 정종득 시장은 해양·관광 중심도시 건설과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올해 주진 사업을 선정했다.

정 시장은 "삼학도 복원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남교동 공설 시장 35층 쌍둥이빌딩 재건축, 서산·온금지구 및 대성도 재개발,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 건립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이를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실·국장과 사업소장 등 30여명으로 예산

시작 때마다 호화찬란한 무너만 있는 현안사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강구하고 교통체증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이다.

예산강구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고하도~죽교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목포대교 건설을 위해 공기(工期)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조기 완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 시 인구유입에 만전을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또 선거때마다 후보자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포와 중국간 카페 리호 직행으로 개설이 절실했다.

특히 남교동 공설시장 쌍둥이 빌딩 재건축과 서산·온금지구 및 대성도 재개발 등이 유령무실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장 임기

/서부취재본부=임영춘·이상선기자

진도 14개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시설

여름 피서철 맞아 2억여원 들여 설치

진도군은 최근 정주어항(국가·지방)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설치했다.

진도군은 항·포구에서 차량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2억원을 투입해 관내 14개 항·포구에 대해 차량 추락 방지시설과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설치

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서거자·별포·굴포·창유항 등 지역내 4개항에는 이용객 안전시설을 설치했고, 국가·지방어항 10개 전 구역에는 안전사고 예방표지판을 설치했다.

진도군 지역 어촌정주어항은 모두 14곳으로 여름 피서철이 되면 낚시 등

/서부취재본부=박현경기자 hypark@

가족단위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찾는 피서지 역할을 특별히 하고 있다.

하지만 방파제쪽이 협소해 차량을

돌리는 과정에서 추락하거나 물유강

에 세워둔 차량이 제동장치가 끌려

바다로 빠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안전시설 확충에 따라 어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군 지역 어촌정주어항은 모두

14곳으로 여름 피서철이 되면 낚시 등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 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521-6024 (FAX) 521-6026

공장 매매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 대지 4,959㎡(1,500평)

• 건물 2,176㎡(658평)

• 흐이스트 5t, 10t (총고 9m)

• 매매가 22억 5천만원

공장 임대

• 평동공단 2번로(신축)

공장 760㎡(230평)

공장 430㎡(130평)

• 임대가 평당 2만원

총고 8~9m 흐이스트 설치

물류창고 임대

• 하남공단 8번로

건물 1,510㎡(475평)

임대가 평당 1만7천원

총고 높이 7m

현 대로변 위치 최고

금산공인중개사

T.881-566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삼무방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앞(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9㎡ (108평 분할기준)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기준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통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철령면

철령면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겸유 910㎡

■ 특징

-주유소건설 허가 특

-도로겸용 허가 특

-마땅에서 광주상행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철령농공단지앞

유동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매월동 자연녹지 매매

• 면적: 약 3,870㎡

• 단 가: 평당 200만원

• 위 치: 매월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대로변

• 빌라, 가든, 전원주택

최적화

• 지가 급등지역

해남 우수영관광지에 명량대첩 체험공원

'호국 성지'로 거듭난다

해남군 우수영관광지가 호국(護國)의 성지로 거듭난다.

해남군은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일원에 명량대첩 테마공원과 함께 체험공원이 조성되면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가치에 들어맞는 호국성지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체험공원 조성에는 50억원이 투입되며 ▲조선 수령·수군 민속체험장 ▲거북선 전시·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올해는 우수영 유스호스텔을 활용한 병영 체험이 가능한 '막 태워'가 우선 설치된다.

이 사업은 내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돼 올해 국비를 포함해 8억3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또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명량대첩 테마공원에는 ▲함상 공원 ▲수영문화관 ▲총통·신기전 체험 ▲물살 체험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관광사업이 많은 만큼 명량대첩의 특색을 살려 해남 고유의 관광자원으로 기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국내 최대 매립단지인 해남군 산이면의 '보해 매실농원'에서 청매실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 보해는 이달 중순까지 450여t의 청매실을 수확할 예정이다.

〈보해 제공〉

차와 전통공예의 만남

무안군 12일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

무안군은 초의선사 탄생 224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 무안군 삼

향면 왕산리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를 개최한다.

'차와 전통공예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차와 관련한 고유의 전통공예 체험행사와 원어민강사·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100여명을 초청한 '세계인의 아름다운 차자리전'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중학생 300명 대상

해당화잎 활용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영광군 옥록차 개발

영광군이 해당화잎을 활용한 옥록차를 개발,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한다.

영광군은 보성녹차시험장에서 해당화잎 가공작업을 마친 뒤 이달 중 대체제약으로 전달, 성분검사 및 상품화 연구 등에 활용해 이르면 내년 초 옥록차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화 옥록차' 사업은 영광군과 전남도 농업기술원·태극제약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상품 원료표준화는 전남도 농업기

술원과 태극제약이 공동으로 협력

하여 진행되고 있다.

상품화는 영광군과 태극제약이

제작하고 있다.